

## 영광군, 소금 명품화... '벚짚가마니 천일염' 저장고 준공

1920㎡ 창고 4동 준공...연간 800t 저장가능

40kg씩 담아 최소 3년 간 자연 상태에서 보관

국내 최대의 천일염 산지인 전남 영광군이 '벚짚가마니 천일염'을 명품 소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숙성·저장 시설을 준공했다. 영광군은 천일염 집산지인 염산면 아월리에 소재한 벚수소금㈜ 어업회사법인이 지난 7일 벚짚가마니 천일염 장기 저장 시설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착공해 준공된 이 시설은 1920㎡ 부지에 연간 천일염 800여t을 숙성·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4개 동을 갖췄다. "벚짚가마니 천일염"은 위생적이면서도 고품질 소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조상들의 전통보관 방식인 벚짚가마니에서 착안한 숙성 소금이다. 별도로 제작한 벚짚가마니 한 가마니 당 천일염을 40kg씩 담아 최소 3년 간 자연 상태에서 보관한다. 이 과정에서 통기·통습을 통해 쓴맛을 내는

염수가 제거돼 고품질 숙성 천일염을 얻을 수 있다.

영광군은 '벚짚가마니 천일염' 저장고 준공식을 기점으로 시설을 확충해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국내 천일염 시장의 범위를 해외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벚짚가마니 천일염 저장 시설 준공은 영광산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와 가격하락 방지,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상생도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천일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천일염 집산지인 영광군 염산면 아월리에 소재한 벚수소금㈜ 어업회사법인이 지난 7일 벚짚가마니 천일염 장기 저장 창고를 준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영광군 제공)

## '호남이 흔들린다'...이낙연의 딜레마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비를 맞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동반하락하는 와중에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대선후보 선호도는 어느 순간, 부동의 1위 자리까지 내렸다. 뒷발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1위, 이낙연 대표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13%를 얻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3위였다.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광주·전라지역 지지율이다. 무려 26%까지 떨어져 이 지사(27%)에게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부동의 1위를 달렸던 시점과 비교하면

당 안팎 악재 속 호남 지지를 빠져...유력 대권주자 입지 '흔들' 그만의 리더십 안 보여 호남인들 실망 "차별화된 강한 리더십 필요"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 지지도(37%)보다는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낙연 대표 측은 호남 지지율 50%대였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하는 호남지역민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과거 DJ 때처럼 압도적 지지를 보내 줄 것이다"고 기대해왔지만 지금의 성적표는 오히려 역주행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 출신 유력 대권주자로서 아성을 굳혀왔던 이 대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최근의 위기상황에 대해 다양한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장수 총리 시절 보여줬던 리더십이 당 대표 취임 이후로는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이다 총리'로서 국민과 공감했던 'NY 리더십'이 확장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추-윤 갈등 사태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도 역할이 모호했다. 말을 아낀 이재명 지사와는 달리, 윤석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았으며 호텔식 전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데도 이 대표는 추미에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스스로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의지의 발로인지,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에는 윤석열에 막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반감이 컸으니, 이 대표의 발언에도 분명 명분은 있었다. 그렇지만 결과는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옴티머스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측근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대표에게는 새로운 악재가 되고 있다. 호남지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에는 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그만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계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내 친문그룹이나 친문 지지층과의 역학관계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출신으로서,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배를 탄 것은 아니다. 친문그룹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유력주자인 이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이어가는 것이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제3의 후보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이 대표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와는 어느 정도 연동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 대표만의 차별화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춰 정국을 리드해 가는 강력한 카리스마, 또 한편으로는 현재 추-윤 정국에 막혀 지지부진해 있는 개혁의 완성을 이끄는 리더십이 절대 필요하다. 진단과 해법이야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2%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DJ 이후 새로운 지도자를 꿈꾸는 호남지역민들의 정서다. 신봉우기자

## '확산 우려' 영암이어나주서도 'AI항원 검출'...예방적 살처분

전남지역 최대 오리 산지인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이웃 지자체인 나주시의 한 오리농장에서도 AI 항원(H5)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농가와 같은 계열 농가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나주 세지면 A오리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나주시는 농장 간 수평 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A농가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사육 중인 오리 3만2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있다. 현재 A농가에서 검출된 AI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결과는 9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나주시는 A농가의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되면 당일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한 세지·봉황·왕곡면 가금류 농장 9곳에서 사육 중인 닭(산란계·3개 농장) 29만4000마리, 오리(6개 농장) 11만3300마리 등 총 40만7300마리를 살처분 할 방침이다. 또 나주지역 가금류 사육농가 전체로 30일 이상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나주지역 가금류 사육 규모는 126농가에서 오리(67농가) 115만8000마리, 닭(64농가) 437만4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